



#### ※ 표준화분과위원회 제4차 회의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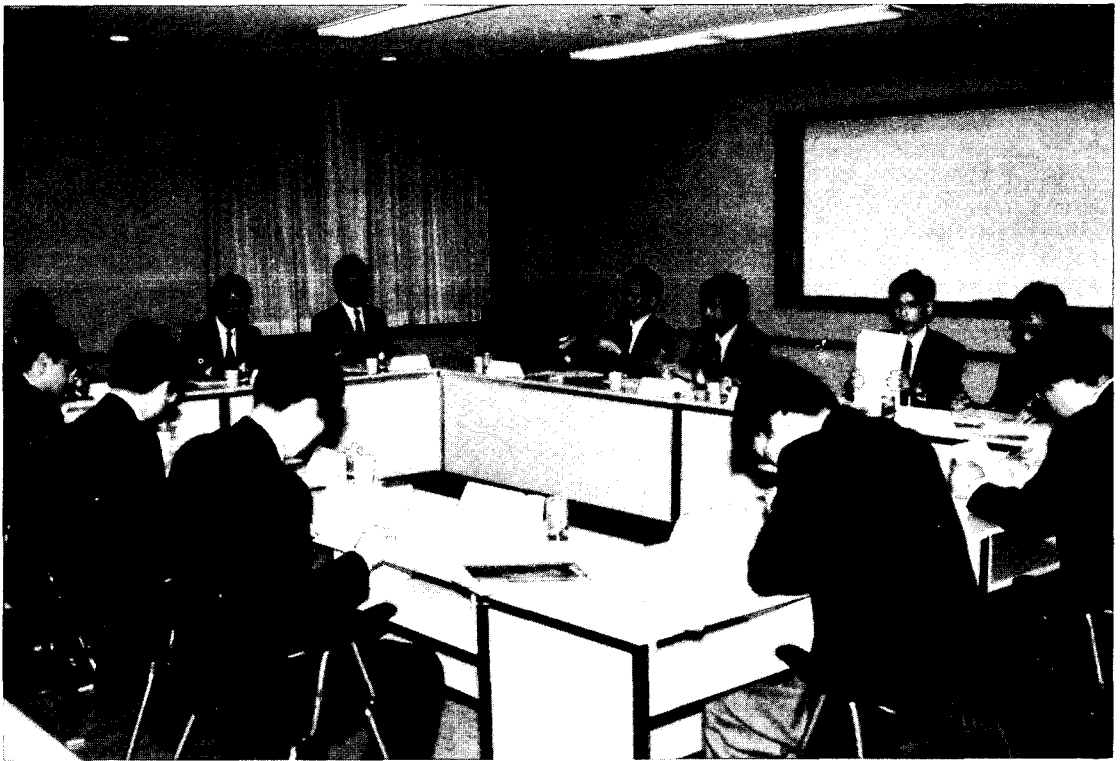
한국DB진흥센터산하 표준화분과위원회 4번째 전체회의가 오해석 교수(위원장)외 7명의 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10월 15일 센터 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모임에서는 위원회 산하 실무작업반별로 '94년 12월말까지로 계획된 연구과제사업에 대한 의견제출과 이에 대한 토론이 중심을 이루었다. 위원회는 연구과제사업을 1차년도('93년 12월말)와 2차년도 '94년 12월말)로 나누어 작업반별로 연구를 진행하고 우선 1차년도 최종보고서를 내년 1월까지 제출하여 3개과제를 합본, 발간하기로 하였다.

위원회에서 결정된 실무작업반별 연구과

제(1차)를 살펴보면, 먼저 「DB구축비용산정 실무작업반」은 “DB구축비용산정 기준 및 서비스 이용요금 체계설정을 위한 기초조사”를 실시하기로 하였고, 「DB검색표준분류 실무작업반」은 “DB검색 표준화를 위한 기초연구”를, 그리고 「DB표준분류 실무작업반」은 “표준안 작성에 관한 기초연구”를 과제로 선정, 연구를 추진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위원회는 이번에 토의, 결정된 내용을 좀더 심층적으로 조사, 연구하여 오는 11월 26일(금) 오후 4시 센터회의실에서 연구과제 중간보고를 위한 전체모임을 갖기로 결정하였다.



※ 체신부 주관, DB산업육성위원회 1차 회의 개최

공공DB 선정과 개발, 육성 등 DB산업의 현안을 토의하기 위한 「DB산업육성 위원회」(위원장 황규영 교수, KAIST)의 제1차 전체회의가 조선일보 정동별관 7층 소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DB산업육성위원회」는 체신부가 낙후된 우리나라 DB산업의 육성과 발전을 위하여 설립한 「정보통신협의회」산하의 10개 분과 위원회중의 하나이다. 이 위원회는 체신부의 정책적 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기관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관련 업계·학계의 전문가들로 구성되어 필요시에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로 공공DB의 개념규정과 이의 소재과약, 보유기관 자료공개와 이의 개발 및 관리, 개발일

정 및 향후 역할분담 등에 대한 열띤 토론이 이루어졌다. 당초에 이번회의는 지난 8월 체신부가 발표한 「정보화 촉진을 위한 DB산업육성대책」의 세부계획에 대한 체신부의 설명과 이에 대한 전문가들의 의견수렴이 주목적이었다. 이번 회의에서 위원들은 공공DB 자체가 국가정보화사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대단히 높고, 대상DB의 선정과 보유기관 정보의 공개, 개발에 따른 범위와 개발주체의 선정, 개발자금의 조달과 운영, 시스템 구축과 운용등이 모두 대단히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에, 향후 추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예방하기 위해서 앞으로도 많은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고 모았다. [R]